물관리로 선진농업 앞당긴다

5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 국비지원 절실

인력 줄고 예산 깎여 재해 대응력 '뚝'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29일 강풍을 동반한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유실된 강진군 마량방조제에 중장비를 긴급 투입해 23시간만에 복구작업을 완료했다. 마량 방조제는 일제강점기인 1927년에 설치돼 1982년 개·보수했으나 30년이 흐르며 노후화됐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제공〉

지난 29일 강풍을 동반한 초대형 태풍 '볼라벤'이 서해상으로 북상하며 도내 농업 수리시설에 많은 타격을 주었다. 특히 강진군 마량면 마량 방조제는 제방과 석축, 제방 너머로 파도가 넘지 못하도록 하는 파라펫(parapet) 400여m가 유실돼 12억여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일제 강점기인 1927년에 설치돼 1982년 개·보수를 거쳤지만 개·보수 이후 30년이 지나며 노후화된 방조제는 태풍이 몰고온 강한 파도와 비바람을 끝내 견디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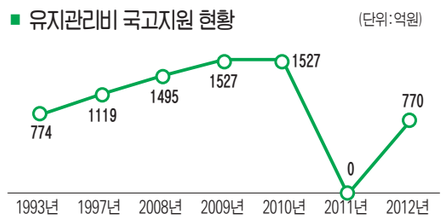
◇농업 수리시설물 노후화돼= 전남지역을 비롯해 전국 농업용 수리시설이 노후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예산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 전체 수리시설 7만925개소 가운데 58%인 4만986개소가 1981년 이전에 준공돼 30년이상 경과됐다. 50년이상 경과된 시설은 1만9184개소로 전체의 27%를 차지한다. 재해위험 노출이 큰 저수지는 95%가 30년이상 경과됐고, 용배수로 18만4000㎞중 10만8000㎞

저수지 95% 30년 이상 노후화 개보수 시급

용배수로 59% 아직도 흙수로 물 손실 심각

■ 유지관리비 국고지원 현황 (단위:억원)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59%)가 아직도 누수가 발생하는 흙수로인 상태이다. 전남지역 역시 전체 저수지 3224개소중 94.1%(3034개소)가 30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방대한 전국 시설물을 관리하고 개·보수하기 위해서는 연간 33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유지관리 비용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00억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유지관리비는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시설물의 점검·정비사업과 토사 준설사업, 수리시설물 보수·보강 사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다.

유지관리비는 1997년 1119억원, 2009년 1527억원이 지원됐으나 지난해에는 한푼도 지원되지 않았다. 지난해의 경우 당초 1436억원이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구제역 방제를 위한 긴급예산으로 전용됐기 때문이다. 올해는 유지관리비 국비지원이 770억원으로 이 가운데 전남지역에는 105억원 가량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국비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지출된 지난해 유지관리비 252억원보다 훨씬 적은 규모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00년 통합출범 당시 농업인 서비스 차원에서 수세(水稅)를 폐지했다. 이전까지는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대가로 10a(300평)당 1987년 쌀 26kg, 1989년 쌀 5kg, 1996년 6000원 등의 조합비(수세)를 부과해왔다. 수세폐지 이후 공사는 국고지원 외에 부족한 유지관리 비용을 태양광·소수력 발전과 같은 공사 부대사업 수익과 공사 자산매각 수익 등으로 충당해오고 있다.

◇국고 보조금 현실화 절실해= 공사 출범당시 농업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은 전남에서만 500여명에 달했으나 현재는 240여명으로 줄었다. 반면 시설노후화와 물가상승 등에 따라 유지관리 비용부담은 매년 증가 추세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보다는 공사의 자체 경영개선을 통한 예산절감을 강조하며, 매년 국고보조 규모를 줄이고 있는 현실이다.

공사는 2013년도 농업시설 유지관리비로 2000억원을 지원해 줄 것으로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 1차 심의에서 819억원으로 대폭 삭감된 상태이다. 내년에 안정적인 영농관리를 위해서는 연간 35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공사는 추정하고 있다.

유지관리비 감소는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질이 떨어짐은 물론 무엇보다 이상기상 현상에 따른 재해 대응능력 부족으로 직결된다. 이에 따라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기능을 포함시키고, 농업수리 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원가를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김행윤 전남지역 본부장은 "수리시설 현대화와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비용은 재해대비와 직접 연관된다. 농업을 살리고,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이면서 전폭적인 유지관리비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작은 스포츠카〉

영암 F1경주장에 카트 경기장

국내 유일 국제 규모…9일 개장후 '코리아 카트 챔피언십' 대회

국내 유일의 국제 규모 카트(Kart) 전용 경기장이 영암 F1경주장에 들어선다. 카트는 레저생활을 즐기거나 레이싱에 입문하려는 사람을 위해 만든 작은 스포츠카이다.

전남도는 "영암 F1국제 자동차 경주장내 5만1000㎡에 총 길이 1.2km, 폭 8~12m의 카트장을 신설, 오는 9일 개장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장식 후 국내 최대 카트대회인 '2012 코리아카트 챔피언십'(KKC)과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KSR)이 열린다.

이 경기장은 국제카트협회(CIK-FIA)가 요구하는 규격과 안전시설 조건을 모두 갖췄으며, 최첨단 계측시스템과 야간조명, 음향시설 등 대회 개최를 위한 최상의 시설을 구비했다. 국내에서 카트대회가 가능한 경기장은 잠실 카트체험장, 파주 스피드파크 등과 제주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레저 카트장 등이 있으나 국제 대회를 충족한 경기장은 영암이 유일하다.

영암 F1 카트경기장은 크게 대회(레이싱) 경주장과 레저(렌탈) 경주장으로 구분된다.

대회경주장은 직선주로의 길이와 커브의 난이도에 따라 '기술구간'과 '속도구간'으로 운영된다. 레저 경주장은 수시로 경주로를 변경할 수 있도록 2개를 운영, 다양한 구간을 달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카트를 타는 재미를 더했다.

또 F1경주장의 구간별 특성을 잘 반영, 어린 선수들이 F1 선수의 꿈을 키우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전남도는 레이싱용, 레저용, 주니어용 등 다양한 종류의 카트 30대를 확보, 저렴한 사용료로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용료는 주말 10분당 1만2000원, 주중 1만원이다.

최종선 전남도 F1대회지원담당관은 "카트경기장 개장을 계기로 F1경주장 일대가 명실상부한 국내 모터스포츠의 메카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영암지역 민관군 겹태풍 피해 복구 총력

대봉감·무화과 등 90%까지 수확 못해…현장 방문 김총리에 대책 건의

영암지역 민·관·군이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한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3일 영암군에 따르면 제15호 태풍 '볼라벤'과 제14호 태풍 '덴빈'으로 인해 313.8mm의 강우량을 기록해 주택 41동이 전파되거나 반파되고 총 25세대에 7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한 농작물의 경우 대표 농산물인 대봉감은 620ha, 배 480ha, 무화과 207ha 면적의 피해를 입어 면적당 적게는 65%에서 많게는 90%이상 피해를 입어 수확 자체도 힘든 상태다. 벼도 물에 잠기거나 쓰러지는 등 모두 1765ha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피해액을 31일 현재 100억여원으로 잠정집계 했지만 정전으로 인한 피해 등 정확한 조사가 나오게 되면 2차 피해액은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31일 영암군 금정면을 방문, 이번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대봉감 농가를 위로하는 등 피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사진〉

김일태 영암군수는 "대봉감의 경우 임산물이기 때문에 평지에 있는 면적보다 산에서 재배하고 있는 면적이 훨씬 많아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커 80~90%는 수확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하우스와 축사뿐만 아니라 벼 또한 침수로 인해 백수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관할 정부부처와 함께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에 힘써줄 것"을 김 총리에게 건의했다.

한편 영암군 산하 공무원 200여명과 제3함대 장병 등 군인 100여명이 삼호읍과 덕진면, 시종면 등 피해가 심각한 곳에 투입돼 복구작업에 구슬땀을 흘리는 등 민·관·군이 함께 복구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부취재본부=문병선기자 moon@

k-water 전남본부 직원 동아리 복지시설 급식봉사

k-water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신송운)는 3일 광주시 서구 금호 종합복지관에서 독거노인 · 영세민 · 지체부자유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급식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k-water 전남지역본부 직원 동아리 '남도 다솜이'는 서구 금호동 시영아파트내 복지관을 매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방문해 점심시간을 활용, 봉사자들의 부족한 일손을 돕는 급식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남도 다솜이' 임직원들은 급여중 일부 금액을 기부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이들은 참여기금으로 매월 1차례 특별 간식도 준비하는 등 올 하반기에도 금호 복지관에서 이웃사랑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송기동기자 song@